

[안수집사회의] 2026.06.27.(토)11:00~ (예품교회 소예배실)

(예배)

- 찬송 :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 기도 : 함영국 집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허락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삶으로 써간다고 하면서도 교회 이전과 관련한 우리 예품교회의 어지러운 상황을 보며,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우리의 신앙 현실을 마주합니다. 오늘의 모임을 통해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며, 잘못된 부분은 깨닫고 바로잡는 시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수집사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자기 주장에 앞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말씀 : 고린도전서(15:35~49) “몸의 부활”
- 찬송 : 342장 너 시험을 당해
- 주기도문

(참석자)

함영국, 민도홍, 조준모, 김근수, 홍순유, 노진선

(토의 내용)

1. 교회이전 관련 마무리 참여

- 방범CCTV설치, 찬양대실(소예배실)집사가 설치, 외부조명 설치, 종탑 업그레이드 등등
- ;- 외부조명 설치 검토(예산 50만원 내외)
- 이전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논의
- ;- 특방 신규 개설 필요
- ;- 안수집사회 정기 월례회 필요(다양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2. 교회 현안

- 교회이전 과정에서 교회를 떠난 분들과의 관계 회복과 부서(안수집사회) 차원의 대응
- 전 담임목사(최철규 목사)와의 관계 회복
- ;- 떠난 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최 목사님도 잘 지내고 계시므로 일단 부서차원의 접촉과 대응은 제한.
- 1부예배 시작에 대한 이견 정리 및 건의
- ;- 이전 과정에서 분열과 아픔이 있었기에 단합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예배의 분리는 공동체의 화합을 방해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 ;- 예배 장소가 협소한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인원을 위해 추가 비용(매월 120만원) 지출도 무리가 있음.
- ;- 결정 과정도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정이 필요함.
- ;- 정식 안건으로 운영위에 전달 할 예정임.

- 예품교회 평판에 대한 대응 및 개선 방안
- ; -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기도하며 점진적으로 개선 노력
- 3. 예품교회 2.0.비전수립
 - 정관개정(목회자 신임 평가 등등..)
 - ; - 청빙 절차 진행 전에 정관 개정 필요.
 - ; - 목회자의 신임투표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
 - ; - 기획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정관의 개정 및 보완 작업 진행
 - 독립교단 존속여부
 - ; - 주위의 평판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측면이 있음.
 - ; - 기존 장로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음.
 - 리더십 방향(목회자 주도 단일 리더십 또는 소그룹 활성화)
 - ; - 청빙절차를 서두르지 말고 내부적으로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작은 리더십 발휘하도록 지원
 - ; - 신임 목회자에게 권한 확대하는 쪽으로 하여 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
- 4. 목회자 청빙(위 내용참조 - 예품교회 2.0.비전수립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
 - 청빙 기준안 마련
 - ; - 추천받은 청빙위원은 청빙위원회에서 취합된 안수집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의토록 함.
 - 목회자 참여 활성화 및 권한 확대 방안
 - ; - 목회자 신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관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안건을 운영위에 전달 예정.
 - 예품교회 소개 내용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